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개발

이상현*, 유은영**, 정민예**, 박수현**, 이재신***, 이택영****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한서대학교 보건학부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활동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문헌 조사에서 국내 노인들이 참여하는 167개의 활동 목록을 수집하였고, 2단계에서 1차 패널회의를 실시하여 167개 항목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한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들을 삭제하여 1차 활동 목록을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5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서 선별된 활동들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4단계에서는 2차 패널회의를 통해 3단계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최종 활동 목록을 선정하였다. 5단계에서 선정된 67개 활동들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군집 분석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차 패널회의에서 일부 활동을 재분류하여 활동 영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결과 :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세 개 영역 6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수단적 활동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여가 활동이 18개, 사회 활동이 16개 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작업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최초의 도구로서 임상에서 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 수단적 활동, 작업치료, 평가 개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 참여

I.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기술 및 건강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이 증가하고 있다(김제안과 채중훈, 2005; 노영섭, 1997).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에 약 9%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평균수명도 80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7). 향후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면서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 대응 체계 구축, 고령자 집단 보호 정책 수립, 노인 고용 확대, 노인의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김미령, 2008, 설민신, 2008; 전정태, 2000).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Flood, 2002).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질병과 그에 따른 기능 장애 예방, 둘째, 신체 및 정신적으로 높은 기능 상태 유지, 셋째,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과 사회참여가 필수적이다(Gautman et al., 2007; Peloquin, 1991; Wendel-Vos et al., 2004).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교육, 여가, 자원봉사, 직업 활동 등의 개인 및 사회활동 참여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 개인 수준의 건강 요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안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동배와 박은영, 2007; 박승한 등, 2005; 이동수와 권중근 2003; 이준수, 오일영과 정일규, 1995; 최명애 등, 2004; Chapman & Beulet, 1983).

활동의 유지와 사회참여는 현재 작업치료의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이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08; Pierce, 2003). 작업치료의 주요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활동 혹은 작업(occupation)을 가능하도록 기능을 증진시켜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Bonder, 1997). 같은 맥락에서 AOTA는 2008년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II를 재편하면서 작업의 영역을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s), 휴식과 잠(rest and sleep), 교육(education), 일(work), 놀이(play), 여가(leisure),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로 확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OTA, 2008).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작업 혹은 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작업치료 중재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 및 노화에 의한 작업 능력의 변화와 추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작업치료 분야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크게 상향식 접근(bottom up approach)과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Crepeau, Cohn, & Schell, 2003). 상향식 접근은 작업 기능 제한의 원인으로써 클라이언트 요소(client factors), 수행기술(performance skills)(AOTA, 2002) 혹은 신체 기능과 구조들을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작업수행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하향식 접근, 즉 작업수행에 기반한 평가(occupation based assessment)는 작업수행 능력과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유형의 평가 방법을 고려할 때 질병 및 노화에 기인한 활동 및 그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기초한 평가 도구의 사용이 적합하다.

노인들이 수행하는 활동 영역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이 용이한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활동분류카드(Activity Card Sort: ACS)가 있다. 활동분류카드는 노인의 포괄적인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1995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Baum & Edwards 2001). 이 평가 도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 수준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뇌졸중, 시각 장애 등의 다양한 질병과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Baum, 1995; Edwards & Baum, 1998; Edwards et al., 2006; Everard, 1999; Everard et al., 2000; Hartman-Maeir et al., 2003; Hartman-Maeir et al., 2007a; Hartman-Maeir et al., 2007b; Law, Baum, & Dunn, 2001). 미국형 활동분류카드는 수단적 활동, 저강도 여가 활동, 고강도 여가 활동, 사회 활동의 네 개 영역의 총 8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Q-sort methodology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시된 그림카드를 자신의 활동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또한 활동분류카드는 결과 해석 과정에서 개인의 현재 활동 수준(level of current activity), 이전 활동 수준(level of previous activity)을 기초로 활동 참여 보유 수준(retained level of activity participation)을 산출하여 작업 혹은 활동 수준의 변화 양상과 선호도를 알 수 있어 클라이언트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Baum & Edwards, 2001).

미국에 이어 최근에 홍콩, 이스라엘, 호주에서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활동분류카드가 개발되었고, 각국의 활동분류카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내적 일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성개념 타당도, 내용 타당도,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 판별 타당도(discriminative validity) 등이 검증되었다(Baum, 1993; Baum, 1995; Chan, Chung, & Packer, 2007; Edwards & Baum, 1998; Katz et al., 2003; Packer, Boshoff, & Dejonge, 2007; Sachs & Josman, 2003; Stoffel & Berg,

2008).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자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의 빠른 확산과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이 평가 도구의 가치와 유용성을 반증하며, 국내에서도 이 도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과 이와 함께 변화하는 작업치료 서비스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수행 중심의 평가도구의 개발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개념 및 작업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욕구를 반영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가 개발된다면, 노인 분야에서 작업 활동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국내 최초의 평가도구로써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형 활동분류카드에 기초하여 국내의 문화를 반영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개발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은 총 5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활동 목록 수집

활동 목록을 수집하는 과정으로써 2008년 3월 ~ 5월 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은 한국 사회의 퇴직 연령, 향후 활동의 변화 경향, 노인 여가 활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 추이, 노년기 시작 연령에 대한 지각 등을 고려하여 55세로 하였다(윤진, 1988; 이현기, 2007). 외국형 활동분류카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및 국내 연구 문헌(남기민과 황현주, 2000; 민경진과 황진수, 2007; 이택영, 2006; 통계청, 2004)에 포함된 167개의 활동 목록을 수집하였다.

2. 1차 활동 목록 선별

167개 활동들의 1차 목록 선별을 위해서 작업치료학과 교수 3인과 작업치료사 1인으로 구성된 1차 패널회의를 2008년 5월 15일에 실시하였다. 1차 패널회의에서 다른

활동과 의미가 유사한 활동, 한국 문화에 적절하지 않은 활동들을 삭제하여 총 127개의 활동들로 구성된 1차 활동 목록을 선별하였다.

3. 2차 활동 목록 선별

선별된 1차 활동 목록에서 5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여 활동들을 최종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으로 설문 조사자가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설문에 응답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과 인지능력 소유자로 한정하였고, 시·청각 손상이 없으며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작업치료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7명이었으며, 도시 지역 거주자가 5명, 농촌 지역 거주자가 2명이었고, 설문 실시 전에 설문지의 체계적인 작성 요령 및 효과적인 면접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가 방법을 숙지시켜 모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설문 조사에 앞서 활동 목록으로 선별된 127개 각 활동들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 및 생활시간 조사보고서의 활동별 정의에 기초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1차 패널회의에서 패널들의 동의를 구하였다(통계청, 2004). 설문 조사자는 127개 활동 각각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어르신께서는 한국의 55세 이상 노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작적 정의된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고 ‘아무도 안 한다(10명 중 0명)’,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다(10명 중 1~2명)’, ‘일부 사람들이 한다(10명 중 3~5명)’, ‘많은 사람들이 한다(10명 중 6~8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10명 중 9~10명)’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설문 조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설문지에 활동 별로 1개의 해당 란에 ‘√’ 표기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127개의 활동들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아무도 안 한다.’ 0,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다.’ 1, ‘일부 사람들이 한다.’ 2, ‘많은 사람들이 한다.’ 3,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 4로 코딩하여

입력하였고, 윈도우용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27개의 활동별 산술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4. 최종 활동 목록 선정

최종 활동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패널회의와 동일한 패널들로 구성된 2차 패널회의 및 활동분류카드 원저자와 합의 하에 1차 설문 조사 분석에서 계산된 활동별 산술 평균의 기준 점수를 결정하였다. 2차 패널회의는 2009년 3월 27일에 실시하였고, 회의 결과 127개 활동을 구분할 항목별 산술 평균을 호주형 활동분류카드에 근거하여 1.40/4.00으로 결정하였다(Doney & Packer, 2008). 결정된 산술 평균에 따라 127개의 활동을 분류한 후에 선정된 활동들 중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활동 내용이 중복된 항목들을 통합하였고, 활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일부 항목들은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 목록을 확정하였다.

5. 활동 영역 분류 설문 조사 및 분석

최종 활동 목록으로 선정된 항목들의 활동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 대상자는 2차 활동 목록 선별을 위한 1차 설문 조사 연구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인 자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자가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작업치료학과 2학년 재학생 7명으로 도시 지역 거주자 5명, 농촌 지역 거주자가 2명이었고, 설문지의 체계적인 작성 요령 및 효과적인 면접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가 방법을 숙지시켜 모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67개의 활동을 수단적 활동, 여가 활동, 사회 활동의 3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일, 가사 활동 등과 같이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활동입니까?”, “일, 가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즐기기 위한 여가 활동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친분을 쌓기 위한 사회 활동입니까?”를 질문하였고, 설문 조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설문지에 각 활동이 속하는 1개 영역의 해당 칸에 ‘√’ 표기 하였다. 영역 분류 시 사용된 위의 질문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형 활동분류카드 개발 시 사용된

방법을 참조하였다(Packer, Boshoff, & Dejonge 2007).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단적 활동’ 1, ‘여가 활동’ 2, ‘사회 활동’ 3으로 코딩하여 입력하였다. 입력한 자료를 윈도우용 SPSS 1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활동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 30일에 1명의 작업치료사를 제외하고, 1차 패널회의와 동일한 패널들로 구성된 3차 패널회의에서 67개 활동에 대한 패널들의 분류, 활동의 영역별 응답률,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각 활동의 영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2차 활동 목록 선별

1차 활동 목록으로 선별된 127개 항목들에 대하여 5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여 최종 활동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 분석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386명으로 여자 210명, 남자 176명이었다. ‘나이’의 범위는 55세에서 90세였으며, 평균 나이는 66세 표준 편차는 9세 였다(표 1). 연구 대상자 중 54%가 중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80%는 자신에 건강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55세 이상 건강한 여성 및 남성 노인들의 참여 수준은 표 2, 표 3과 같다. 활동별로 참여율이 높은 수준 따라 구분해 보면 ‘텔레비전 보기’, ‘병원 진료 받기’, ‘약 먹기’, ‘대화하기’, ‘미용실/이발소 이용하기’, ‘휴식 취하기’, ‘전화 통화하기’ 활동은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10위권 내에 있어 있었다.

2. 최종 활동 목록 선정

최종 활동 목록 선정을 위한 2차 패널회의 및 원저자와의 협의 하에 결정한 활동 참여 수준의 산술 평균이 1.40/4.00점 이상인 활동은 총 72개 였다. 여성의 경우 평균 1.40점 이상인 활동은 67개였고, 여성의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남성의 참여 수준이 1.40점 이상인 활동은 5개였다(주유하기, 세차하기, 차량관리하기, 자전거타기, 장기/바둑두기).

표 1.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목록 선정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N=386)

일반적 정보	구분	빈도 수	백분율(%)
성별	남	176	45.60
	여	210	54.40
나이(세)	55-64	196	50.78
	65-74	103	26.68
	75 ≤	57	14.77
학력	무학	83	21.50
	초졸	87	22.54
	중졸	61	15.80
	고졸	110	28.50
	대졸 이상	45	11.65
건강에 대한 인식	매우 건강하다	25	6.48
	건강하다	141	36.53
	보통이다	150	38.86
	건강하지 않다	69	17.88
	매우 건강하지 않다	0	.00
일상생활 불편함	전혀 불편하지 않다	56	14.51
	불편하지 않다	156	40.41
	보통이다	116	30.05
	조금 불편하다	57	14.77
	매우 불편하다	0	.00
배우자 유무	있음	299	77.46
	미혼	3	.78
	이혼	5	1.30
	사별	79	20.47
거주 지역	도시	271	70.21
	농촌	115	29.79

72개의 활동 목록을 선정한 후에 2차 패넌회의를 통하여 활동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활동 내용 파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부 활동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패넌회의에서 8개의 활동을 3개의 활동으로 통합하였는데, ‘슈퍼마켓 이용하기’, ‘대형할인마트 이용하기’, ‘상점에서 옷 사기’ 활동은 ‘쇼핑하기’로, ‘버스 이용하기’, ‘택시 이용하기’, ‘열차/지하철 이용하기’ 활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김장하기’와 ‘김치 담그기’는 ‘김치/김장하기’로 통합하였다. 또한 명칭이 변경된 활동은 4개였는데, ‘손주에게 이야기 해주기’와 ‘손주 돌보기’ 활

동은 ‘손주와 놀아주기’와 ‘손주 키우기’로, ‘친척집 방문하기’ 활동은 ‘친지 방문하기’로 ‘하이킹’ 활동은 ‘등산하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통합 및 명칭 변경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활동 목록으로 여성과 남성에서 활동 참여 수준의 평균이 1.40점 이상인 72개 활동 중 67개가 선정되었다(표 4).

표 2. 여성의 수행 수준에 따른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1차 활동 목록

순번	활동	평균	표준편차	순번	활동	평균	표준편차
1	텔레비전 보기	3.54	.82	65	간호하기	1.43	1.03
2	병원 진료받기	3.15	.93	66	집 유지/보수하기	1.42	1.13
3	설거지하기	3.10	1.06	67	운전하기	1.42	1.09
4	약 먹기	3.08	.99	68	우체국 가기	1.39	1.01
5	대화하기	3.06	1.03	69	주유하기	1.39	1.13
6	집안 청소하기	2.98	1.11	70	제조하기	1.38	1.22
7	식사 준비하기	2.96	1.03	71	애완동물 기르기	1.33	1.08
8	미용실/이발소 이용하기	2.94	1.11	72	빨리 걷기/속보	1.28	1.20
9	휴식 취하기	2.92	1.09	73	세차하기	1.21	1.11
10	전화 통화하기	2.90	1.17	74	집안꾸미기	1.21	1.13
11	쓰레기 버리기	2.80	1.19	75	피서/캠핑하기	1.21	1.11
12	세탁하기	2.78	1.14	76	차량 관리하기	1.20	1.05
13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2.78	1.17	77	국외관광/여행하기	1.19	1.08
14	버스 이용하기	2.67	1.04	78	가계부 쓰기	1.14	1.00
15	슈퍼마켓 이용하기	2.66	1.13	79	조강하기	1.13	1.23
16	가족모임 참석하기	2.61	1.08	80	노래방 가기	1.09	1.01
17	김치 담그기	2.59	1.12	81	자전거 타기	1.05	1.04
18	김장하기	2.59	1.10	82	노인대학 가기	.99	1.04
19	이불 정리하기	2.59	1.14	83	자원봉사하기	.98	.95
20	친구집 방문하기	2.45	1.04	84	취미로 쇼핑하기	.96	1.05
21	장례식 참석하기	2.42	1.16	85	장기/바둑 두기	.93	.95
22	옷 정리하기	2.40	1.27	86	헬스/에어로빅하기	.93	1.07
23	휴식 취하기	2.40	1.21	87	영화보기	.90	1.02
24	재래시장 이용하기	2.38	1.19	88	취미로 요리하기	.90	.99
25	회갑/고희연 참석하기	2.36	1.13	89	웃돌이하기	.88	1.01
26	산책하기	2.35	1.25	90	수영하기	.87	.85
27	마을행사 참석하기	2.30	1.24	91	달리기	.85	1.06
28	친척집 방문하기	2.28	1.08	92	사진 찍기	.83	.94
29	결혼식/돌잔치 참석하기	2.21	1.12	93	베드민턴	.79	.88
30	노인회관/경로당 가기	2.21	1.28	94	운동경기 관람하기	.78	.99
31	텃밭 가꾸기	2.18	1.26	95	요가	.77	.98
32	택시 이용하기	2.14	1.18	96	글/일기 쓰기	.76	.93
33	친목회/계모임하기	2.14	1.29	97	춤추기	.75	.91
34	제사 모시기	2.11	1.40	98	컴퓨터/인터넷 활용하기	.73	.96
35	상점에서 옷 사기	2.08	1.18	99	주식 투자하기	.71	.81
36	대형할인마트 이용하기	2.07	1.27	100	뜨개질하기	.70	.79
37	종교 활동하기	2.04	1.20	101	박물관 관람하기	.70	.88
38	병문안 가기	2.00	1.25	102	이성친구 사귀기	.70	.78
39	공원가기	1.97	1.32	103	음악회 관람하기	.69	.88
40	국내 관광/여행하기	1.97	1.13	104	전시회가기	.68	.91
41	책/잡지 읽기	1.94	1.21	105	학원 수강하기	.67	.83
42	정원/화분 가꾸기	1.92	1.15	106	골프하기	.66	.93
43	집밖 청소하기	1.90	1.22	107	게이트볼하기	.63	.79
44	고추장/된장 담그기	1.89	1.18	108	연극보기	.63	.83
45	다림질하기	1.88	1.18	109	인터넷 이메일쓰기	.62	.86
46	다과/간식 만들기	1.84	1.15	110	낚시하기	.60	.73
47	손주에게 이야기해주기	1.82	1.05	111	편지 쓰기	.58	.75
48	손주 돌보기	1.81	1.14	112	다방가기	.56	.78
49	관공서 이용하기	1.81	1.17	113	볼링하기	.55	.71
50	회식하기	1.78	1.25	114	테니스 등 유사 스포츠	.53	.74
51	성묘하기	1.70	1.32	115	붓글씨 쓰기	.53	.69
52	성경읽기	1.70	1.15	116	꽃꽂이하기	.52	.73
53	화투하기	1.69	1.23	117	수놓기	.51	.70
54	졸업식/입학식 참석하기	1.65	1.05	118	그림 그리기	.51	.73
55	앉아서 사색하기	1.64	1.24	119	컴퓨터 게임하기	.50	.75
56	찜질방 가기	1.62	1.25	120	수공예품 만들기	.49	.64
57	돈/자산 관리하기	1.60	1.36	121	수집하기	.48	.62
58	옷 수선하기	1.59	1.20	122	탁구	.43	.70
59	음악 듣기	1.59	1.30	123	악기 연주하기	.40	.64
60	하이킹	1.52	1.16	124	당구치기	.40	.63
61	라디오 듣기	1.51	1.31	125	목공예하기	.35	.55
62	책/잡지 읽기	1.50	1.14	126	태권도/택견/무술	.34	.53
63	열차/지하철 이용하기	1.49	1.24	127	국궁하기(활쏘기)	.23	.49
64	직장 다니기/일하기	1.48	1.17				

표 3. 남성의 수행 수준에 따른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1차 활동 목록

순번	활동	평균	표준편차	순번	활동	평균	표준편차
1	텔레비전 보기	3.55	.78	65	간호하기	1.47	1.02
2	병원 진료 받기	3.16	.89	66	졸업식 참석하기	1.43	1.05
3	약 먹기	3.00	.91	67	책/잡지 읽기	1.43	1.04
4	대화하기	2.99	1.05	68	음악듣기	1.36	1.16
5	미용실 이용하기	2.97	1.10	69	고추장 담그기	1.34	1.23
6	휴식 취하기	2.77	1.22	70	다과/간식 만들기	1.34	.97
7	전화 통화하기	2.76	1.13	71	우체국가기	1.32	.86
8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2.65	1.09	72	체조하기	1.31	1.22
9	장례식 참석하기	2.59	1.15	73	옷 수선하기	1.23	1.06
10	슈퍼마켓 이용하기	2.54	1.17	74	납시하기	1.22	1.10
11	가족모임 참석하기	2.53	1.08	75	애완동물 기르기	1.20	.99
12	은행 이용하기	2.52	1.14	76	빨리 걷기/속보	1.19	1.14
13	쓰레기 버리기	2.48	1.11	77	노래방 가기	1.17	1.76
14	집안 청소하기	2.44	1.10	78	웃놀이하기	1.17	1.06
15	식사 준비하기	2.44	1.15	79	찜질방 가기	1.15	1.01
16	신문 읽기	2.43	1.13	80	조깅하기	1.13	1.15
17	제사 모시기	2.41	1.43	81	피서/캠핑 가기	1.07	1.04
18	설거지하기	2.36	1.19	82	국외관광/여행하기	1.02	.97
19	버스 이용하기	2.33	1.13	83	가계부쓰기	1.01	.90
20	회갑연/고회연 참석하기	2.27	1.07	84	자원봉사하기	.99	.88
21	결혼식/돌잔치 참석하기	2.24	2.57	85	운동경기 관람하기	.97	1.14
22	친구집 방문하기	2.22	.99	86	달리기	.92	1.01
23	재래시장 이용하기	2.19	1.21	87	배드민턴	.92	.82
24	성묘/별초하기	2.18	1.34	88	사진 찍기	.90	.94
25	텃밭 가꾸기	2.18	1.26	89	노인대학 가기	.85	.91
26	병문안 가기	2.17	1.23	90	게이트볼하기	.85	.96
27	마을행사 참석하기	2.16	1.13	91	집안꾸미기	.84	.94
28	친척집 방문하기	2.14	1.07	92	컴퓨터/인터넷 활용하기	.82	.83
29	운전하기	2.10	1.16	93	주식투자하기	.79	.85
30	친목회/계모임하기	2.07	1.12	94	헬스	.77	.91
31	이불 정리하기	2.04	1.16	95	글쓰기	.76	.90
32	산책하기	2.03	1.21	96	수영하기	.71	.76
33	집밖 청소하기	2.00	1.14	97	다방 가기	.70	.85
34	관공서 이용하기	1.98	1.15	98	영화 보기	.69	.96
35	김장하기	1.94	1.23	99	인터넷 이메일쓰기	.69	.81
36	주유하기	1.93	1.18	100	이성친구 사귀기	.68	.74
37	노인회관/경로당 가기	1.92	1.21	101	골프하기	.68	.88
38	옷 정리하기	1.90	1.16	102	취미로 쇼펅하기	.66	.83
39	세탁하기	1.89	1.19	103	수집하기	.64	.76
40	회식하기	1.88	1.07	104	음악회 관람하기	.64	.84
41	김치 담그기	1.88	1.30	105	박물관 관람하기	.63	.80
42	택시이용하기	1.85	1.16	106	테니스 등 유사 스포츠	.63	.83
43	정원/화분 가꾸기	1.82	1.15	107	당구치기	.61	.82
44	차량 관리하기	1.82	1.18	108	요가	.60	.76
45	집 보수하기	1.81	1.15	109	불멍하기	.60	.73
46	대형할인마트 이용하기	1.80	1.16	110	붓글씨 쓰기	.59	.70
47	종교 활동하기	1.80	1.18	111	컴퓨터 게임하기	.58	.80
48	국내관광/여행하기	1.80	1.12	112	편지쓰기	.57	.75
49	직장 다니기/일하기	1.80	1.21	113	학원수강하기	.55	.72
50	공원 가기	1.78	1.32	114	전시회 가기	.53	.72
51	세차하기	1.75	1.21	115	연극 보러 가기	.52	.79
52	손주에게 이야기 해주기	1.66	1.12	116	춤추기	.51	.67
53	화투하기	1.65	1.02	117	취미로 요리하기	.50	.69
54	돈/자산 관리하기	1.65	1.30	118	그림 그리기	.47	.65
55	손주 돌보기	1.64	1.04	119	탁구	.47	.68
56	성경/불경 읽기	1.59	1.04	120	수공예품 만들기	.45	.65
57	앉아서 사색하기	1.59	1.25	121	뜨개질하기	.44	.71
58	열차/지하철 이용하기	1.56	1.16	122	악기 연주하기	.44	.64
59	하이킹	1.56	1.10	123	목공예하기	.43	.65
60	상점에서 옷 사기	1.54	1.00	124	태권도/택견/무술	.41	.58
61	자전거 타기	1.54	1.18	125	꽃꽂이하기	.40	.62
62	장기/바둑하기	1.50	1.03	126	수놓기	.35	.61
63	라디오 듣기	1.49	1.15	127	국궁(활쏘기)	.27	.50
64	다림질하기	1.48	1.03				

표 4. 조정 후 평균 수행 수준에 따른 최종 활동 목록

순번	활동	순번	활동	순번	활동
1	텔레비전 보기	24	회갑/고회연 참석하기	47	성묘하기
2	병원 진료받기	25	산책하기	48	성경읽기
3	설거지하기	26	마을행사 참석하기	49	화투하기
4	약 먹기	27	친지 방문하기	50	졸업식/입학식 참석하기
5	대화하기	28	결혼식/돌잔치 참석하기	51	앉아서 사색하기
6	집안 청소하기	29	노인회관/경로당 가기	52	찜질방 가기
7	식사 준비하기	30	텃밭 가꾸기	53	돈/자산 관리하기
8	미용실/이발소 이용하기	31	친목회/계모임하기	54	옷 수선하기
9	휴식 취하기	32	제사모시기	55	음악 듣기
10	전화 통화하기	33	종교 활동하기	56	등산하기
11	쓰레기 버리기	34	병문안 가기	57	라디오 듣기
12	세탁하기	35	공원가기	58	책/잡지 읽기
13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36	국내 관광/여행하기	59	직장 다니기/일하기
14	대중교통 이용하기	37	신문 읽기	60	간호하기
15	쇼핑하기	38	정원/화분 가꾸기	61	집 유지/보수하기
16	가족모임 참석하기	39	집밖 청소하기	62	운전하기
17	김치/김장하기	40	고추장/된장 담그기	63	주유하기
18	이불 정리하기	41	다림질하기	64	세차하기
19	친구집 방문하기	42	다과/간식 만들기	65	차량 관리하기
20	장례식 참석하기	43	손주와 놀아주기	66	자전거 타기
21	옷 정리하기	44	손주 키우기	67	장기/바둑 두기
22	은행 이용하기	45	관공서 이용하기		
23	재래시장 이용하기	46	회식하기		

3.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 영역 분류

최종 활동 목록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7명이었으며, 일부 활동에 대하여 영역을 분류하지 않은 17명을 제외하여 남자가 24명, 여자가 26명이었다. 나이의 범위는 55세에서 83세였으며 평균 나이는 68세였다. 연구 대상자 중 54%가 중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80%는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표 5).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최종 활동 목록에서 수단적 활동이 37개, 여가 활동이 14개, 사회 활동이 16개로 분류되었고, 3차 패널회의에서 분류된 활동들의 영역별 타당성을 논의하여 활동 영역을 최종 확정하였다(표 6). 최종

활동 목록에서 수단적 활동이 33개, 여가 활동이 18개, 사회 활동이 16개였다.

IV. 고 찰

작업 참여는 모든 작업치료 중재의 목표이자 모든 치료 환경에서 희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작업치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활동 참여를 전통적으로 비형식적이거나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수의 표준화된 도구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형 활동분류카드 모형을 기초로 국내 노인들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들을 수집

표 5.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 영역 분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N=50)

일반적 정보	구분	빈도 수	백분율(%)
성별	남	24	48.00
	여	26	52.00
나이(세)	55-64	17	34.00
	65-74	17	34.00
	75 ≤	16	32.00
학력	무학	9	18.00
	초졸	18	36.00
	중졸	10	20.00
	고졸	7	14.00
	대졸 이상	6	10.00
건강에 대한 인식	매우 건강하다	2	4.00
	건강하다	17	34.00
	보통이다	23	46.00
	건강하지 않다	8	16.00
	매우 건강하지 않다	0	.00
일상생활 불편함	전혀 불편하지 않다	7	14.00
	불편하지 않다	16	32.00
	보통이다	20	40.00
	조금 불편하다	7	14.00
	매우 불편하다	0	.00
배우자 유무	있음	33	66.00
	미혼	2	4.00
	이혼	15	30.00
	사별	0	.00
거주 지역	도시	31	62.00
	농촌	19	38.00

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활동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활동은 총 67개로 구성되었다. 활동분류카드를 구성하는 활동의 개수를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67개로 활동분류카드 홍콩형 65개와 수적으로 유사하였으나 미국형 80개, 이스라엘형 85개, 호주형 82개 보다 평균 10개 이상 적었다 (Baum & Edwards, 2001; Chan, Chung, & Packer 2003; Katz et al., 2003; Packer, Boshoff, & Dejonge, 2007). 그리고 최종 활동 목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활동

별 산술 평균 결정 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호주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산술 평균을 한국형은 1.40, 호주형은 1.70을 선택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노인들이 수행하는 활동 목록의 종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활동이 속하는 영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단적 활동, 여가 활동, 사회 활동의 3개 영역으로 활동을 분류할 수 있었고, 67개의 활동 중 수단적 활동이 33개, 여가 활동이 18개, 사회 활동이 16개 었다. 미국형 활동분류카드에서는 전체 활동 중 수

표 6.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 영역 분류

영역	활동		
수단적 활동	병원 진료 받기	이불 정리하기	돈/자산 관리하기
	설거지하기	은행 이용하기	옷 수선하기
	약 먹기	옷 정리하기	간호하기
	집안 청소하기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전하기
	식사 준비하기	제사모시기	주유하기
	미용실/이발소 이용하기	집밖 청소하기	차량 관리하기
	쓰레기 버리기	고추장/된장 담그기	집 유지/보수하기
	세탁하기	다림질하기	직장 다니기/일하기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다과/간식 만들기	세차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손주 키우기	
	쇼핑하기	관공서 이용하기	
	김장/김치하기	성묘/별초하기	
여가활동	성경/불경 읽기	텃밭 가꾸기	음악 듣기
	자전거 타기	여행하기	등산하기
	장기/바둑 두기	공원가기	라디오 듣기
	텔레비전 보기	신문 읽기	책/잡지 읽기
	휴식 취하기	정원/화분 가꾸기	화투/카드 놀이하기
	산책하기/걷기	앉아서 사색하기	찜질방 가기
사회활동	종교활동하기	회갑연/고회연 참석하기	병문안 가기
	대화하기	마을행사 참석하기	손주와 놀아주기
	전화 통화하기	친지 방문하기	회식하기
	가족모임 참석하기	결혼식/돌잔치 참석하기	졸업식/입학식 참석하기
	친구집 방문하기	노인회관/경로당 가기	
	장례식 참석하기	친목회/계모임하기	

단적 활동의 비율이 33%인데 비하여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에서는 전체 활동의 50%를 차지하였고, 여가 활동의 비율은 미국형이 55%인데 비하여 한국형은 26%였다. 또한 사회 활동의 비율은 미국형이 18%인데 비하여 한국형은 24%였다. 특히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여가 활동의 개수를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형은 45개, 이스라엘형은 45개, 호주형은 40개로 특히 국내에서 노인들이 수행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수단적 활동, 사회 활동의 종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가 활동에서는 전체 노인 활동에서 여가 활동의 비

율이 26%로 매우 낮았고 ‘텔레비전 보기’, ‘라디오 듣기’, ‘음악 듣기’ 등의 수동적인 활동의 비율이 16%로 미국의 8%에 비하여 높았으며, ‘공원 가기’, ‘산책하기’, ‘휴식 취하기’ 등의 저강도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가 활동이 전체의 89%였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활동 중 미국형 활동분류카드의 고강도 여가 활동에 포함된 활동은 ‘걷기’, ‘등산하기’, ‘자전거 타기’ 세 개 뿐이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여가 활동의 결과물과 저강도 여가 활동이 고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의 첫째는 여가 시간의 부족에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9) 보고서에서 여가 시간과 개인 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포괄적 여가 시간’

을 적용하였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23.7%를 여가 활동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평균(24.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둘째로는 여가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텔레비전 보기' 등의 저강도 활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여가는 참여자에게 본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기 확인, 주관적 삶의 질 고양, 자기 존경심, 사기,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며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Menec, 2003; Benjamins et al., 2003; Everard et al., 2000; Rowe & Khan, 1997). 그리고 여가 활동은 노년기의 생애 전이과정(transition process)에서 대안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이 의미를 창조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현기,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여가 활동의 결핍, 문헌상에서 제시된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 노인들의 여가 시간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고강도 및 저강도 여가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민경진과 황진수, 2007; 서병숙, 1994). 덧붙여, 다양한 여가 활동 개발 시에 여가 종류별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 후 체계적인 여가 운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와 각국의 활동분류카드 활동 간에 공통적인 항목은 활동분류카드 미국형이 26개, 홍콩형이 33개였다. 이 결과에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외국형 활동분류카드와 50% 정도의 항목만이 일치하여 외국형 활동분류카드의 직접적인 국내 적용의 한계를 반영한다. 또한 미국과 홍콩의 활동분류카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약 19개로 '공중목욕탕 이용하기', '장례식 참석하기', '은행 이용하기', '옷 정리하기', '회갑/고회연 참석하기', '마을행사 참석하기', '친지 방문하기', '텃밭 가꾸기', '제사 모시기', '고추장/된장 담그기', '다림질하기', '다과/간식 만들기', '관공서 이용하기', '성묘하기', '졸업식/입학식 참석하기', '찜질방 가기', '우체국 가기', '직장 다니기/일하기', '세차하기'였다. 이중 '공중목욕탕', '장례식', '회갑/고회연', '마을행사', '텃밭', '제사', '고추장/된장', '성묘', '찜질방' 등의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임상적 유용성은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나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Baum, 1993; Packer et al., 2007; Sachs & Josman, 2003; Chan et al., 2006). 이 도구는 다양한 작업치료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노인 활동 관련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재 결과 측정 방법으로서 작업치료의 주요한 목표인 의미있는 작업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의 지역에 한정되어 국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과 대상자들을 확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활동 참여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 과정은 총 5 단계로 활동 목록 수집, 1차 활동 목록 선별, 2차 활동 목록 선별 조사 및 분석, 최종 활동 목록 선정, 활동 영역 분류 조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개발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활동 목록은 총 67개였고, 수단적 활동, 사회 활동, 여가 활동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단적 활동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 활동이 16개, 여가 활동이 18개였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구성하는 활동에는 외국의 활동분류카드와는 달리 '공중목욕탕', '장례식', '회갑/고회연', '마을행사', '텃밭', '제사', '고추장/된장', '성묘', '찜질방' 등의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67개의 활동, 3개 영역으로 구분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가 개발되었다.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는 국내에서 노인의 작업 수행을 평가하는 최초의 도구로써 임상에서 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동배, 박은영. (2007). 여성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38(1), 339-358.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제안, 채종훈. (2005). 고령화 사회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8(1), 213-230.
- 남기민, 황현주. (2000). 고령화 사회의 노인활동 현황과 활성화 대책 - 청주시 중앙공원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 *도시·지역개발연구*, 8(2), 35-58
- 노영섭. (1997).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서울: 한림출판사.
- 민경진, 황진수. (2007).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221-246.
- 박승한, 류호상, 김규호, 안길용, 허용, 장지영. (2005).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삶의 질.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197-204.
- 서병숙. (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설민신. (2008).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분석과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4), 269-281.
- 윤진. (1998).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 *한국심리학회지*, 7(2), 127-139.
- 이동수, 권중근. (2003).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및 고독감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227-238.
- 이준수, 오일영, 정일규. (1995). 노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1), 163-174.
- 이택영. (2006). 작업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을 중심으로 한 노인의 활동 수준과 삶의 질.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원.
- 이현기. (2007). 노인여가활동의 연령 차이 연구: 연령 집단의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231-256.
- 전정태. (2000). 고령화 사회의 고용안전대책. *한국건전사회교육연구*, 5(1), 23-65.
- 최명애, 김중임, 채영란, 전미양, 유정희. (2004). 노인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1), 99-106.
-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한국노동연구원. (2009). OECD 회원국의 여가시간과 삶의 질. *월간 노동리뷰*, 56(8), 69-71.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6), 609-639.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2nd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6), 625-683.
- Baum, C. M. (1993). *The effect of occupation on behaviors of persons with senil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and their carers*. Dissertation. St. Louis, Missouri: Washington University.
- Baum, C. M. (1995). The contribution of occupation to function in person with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Australia*, 2(2), 59-76.
- Baum, C. M., & Edwards, D. F. (2001). *Activity Card Sort(ACS): Test-Manual*. St. Louis, Missouri: Washington University.
- Benjamins, M. R., Musick, M. A., Gold, D. T., & George, L. K. (2003). Age-related declines in activity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illness and religious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8(6), 377-385.
- Bonder, B. R. (1997). *Coping wit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New Jersey: Slack.
- Chan, V. W. L., Chung, J. C. C., & Packer, T. L. (200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ctivity Card Sort - Hong Kong Chinese version.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6(4), 152-158.
- Chapman, N. J., & Beaulieu, M. (1983).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 risk for older adults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0(2),

- 237–244.
- Crepeau, E. B., Cohn, E. S., & Schell, A. B. (2003). *Willard &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10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Doney, R. M., & Packer, T. L. (2008). Measuring changes in activity participation of older Australians: Validation of the Activity Card Sort–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Ageing*, 27(1), 33–37.
- Edwards, D. F., & Baum, C.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after stroke*. Paper presented at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n Meeting. Philadelphia, Pennsylvania.
- Edwards, D. F., Hahn, M. G., Baum, C. M., & Dromerick, A. W. (2006). The impact of mild stroke on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erebrovascular Disease and Stroke*, 15(4), 151–157.
- Everard, K. M.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activity and older adult well 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8(3), 325–340.
- Everard, K. M., Lach, H. W., Fisher, E. B., & Baum, C. M. (2000). Relationship of activity and social support to the function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5B(4), S77–S90.
- Flood, M. (2002). Successful aging: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and Testing*, 6(2), 105–108.
- Gautman, S. A., Mortera, M. H., Hinijosa, Y., & Kramer, P. (2007).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2), 119–126.
- Hartman–Maeir, A., Soroker, N., Oman, S. D., & Katz, N. (2003). Awareness of disabilities in stroke rehabilitation – A clinical trial. *Disability Rehabilitation*, 25(1), 35–44.
- Hartman–Maeir, A., Eliad, Y., Kizoni, R., Nahaloni, I., Kelberman, H., & Katz, N. (2007a). Evaluation of a long-term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adult stroke survivors. *NeuroRehabilitation*, 22(4), 295–301.
- Hartman–Maeir, A., Soroker, N., Ring, H., Avni, N., & Katz, N. (2007b).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e-year post stroke. *Disability Rehabilitation*, 29(7), 559–566.
- Katz, N., Karpin, A. F., Lak, A., Furman, T., & Hartman–Maeir, A. (2003). Participation in occupational performanc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ctivity Card Sort.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3(1), 10–17.
- Law, M., Baum, C. M., & Dunn, W. (2001). *Measuring occupational performance: Supporting best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Thorofare, New Jersey: Slack.
- Menec, V. H. (2003).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8(2), 74–82.
- Packer, T. L., Boshoff, K., & Dejonge, D. (2007). Development of the Activity Card Sort ?. Australia.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5(3), 1–8.
- Peloquin, S. M. (1991).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Individual and collective understandings of the founders, Part 2.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8), 733–744.
- Pierce, D. (2003). How can the occupational base of occupational therapy be strengthened?.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0(1), 1–2.
- Rowe, J. W., & Khan, R. L. (1997).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37(4), 433–440.
- Sachs, D., & Josman, N. (2003). The Activity Card Sort: A factor analysis.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3(4), 165–176.
- Stoffel, A., & Berg, C. (2008). Spanish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Activity Card Sort.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Paediatrics*, 28(2), 171–189.

Wendel-Vos, G. C., Schuit, A. J., Tijhuis, M. A., & Kromhout, D. (2004).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Quality of Life Research*, 13(3), 667–677.

Abstract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Lee, Sang-Heon^{*}, Ph.D., O.T., Yoo, Eun-Young^{**}, Ph.D., O.T.,

Jung, Min-Ye^{**}, Ph.D., O.T., Park, Soo-Hyun^{**}, Ph.D.

Lee, Jae-Shin^{***}, Ph.D., O.T., Lee, Tae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Medical Sciences, Soonchunh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s, Yonse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Medical Sciences,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cience, Hanseo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Activity Card Sort(K-ACS)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changes in activity participation levels in elderly Koreans.

Methods : Basic activities were collected by reviewing literatures and selected through first panel discussion. Selected activit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degree of engagement of healthy adults 55 years and older after survey. Activities to compose the K-ACS were selected in a second panel discussion. In this panel discussion, the mean cut off score, averaged activity participation level, was decided to be 1.40. To categorize selected activities, second survey was performed and survey results was analyzed with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n third panel discussion, some activities recategorized.

Results : The total number of K-ACS's activities was 67 and categorized by three domains: instrumental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The number of leisure activities were 33, leisure activities 18, and social activities 16.

Conclusion : K-ACS was develop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clinical utility and value of this test in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performance.

Key words : Activity engagement, Elderly, Instrumental Activities, Korean Activity Card Sort, Occupational Therapy, Tool development